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21.92	↑ 코스닥	742.90
	(-14.83)		(+2.58)
↑ 금리 (미국 9년)	2.635	↑ 환율 (원-달러)	1454.00
	(+0.053)		(+6.30)



스마트폰도 AI 두뇌 경쟁... 삼성에 도전장 던진 애플

〈갤럭시 S25〉

〈아이폰 SE4〉

애플 '아이폰 SE4' 이번주 공개 보급형 모델에 최신 AI기능 탑재 자체 개발한 5G 칩 장착도 주목 삼성 '갤럭시 S25' 흥행에 맞붙

이달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이 연이어 공개되며 시장 경쟁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세계에서 공식 출시된 가운데 애플은 마니아층이 두터운 아이폰 SE4를 이번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아이폰SE4는 보급형 모델인데도 인공지능(AI) 기능 등 최신 플래그십 아이폰에만 적용됐던 기능들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갤럭시 S25와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그간 마니아층을 확보해왔던 SE시리즈가 최근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한 만큼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5를 겨냥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이번주 아이폰SE 신제품을 발표하고,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 행사는 따로 열지 않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SE4는 지난 2022년 아이폰 S

E3가 출시된 이후 3년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그간 애플이 아이폰SE 시리즈를 2년 주기로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1년 늦은 셈이다. 애플은 지난 2016년 아이폰SE를 처음 출시한 이후 2020년과 2022년 각각 2세대, 3세대 아이폰SE를 선보였다.

이처럼 아이폰 SE4의 출시 시점이 늦어진 만큼 기능들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아이폰 플래그십에만 적용됐던 기능들이 보급형 모델인 SE4에도 대거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 ▲USB-C타입 ▲페이스 ID 안면인식 ▲아이폰 14와 유사 디자인 등이 있다.

SE4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애플 최초로 퀄컴 5G 칩이 아닌 자체 개발한 5G 칩을 장착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SE4는 애플의 AI기능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가장 저렴한 단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16과 동일한 신형 A18 칩을 탑재하고 램 용량도 8GB는 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은 아이폰 14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면서 화면 크기 또한 6.1인치로 전작인 아이폰 SE3(4.7인치)보다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SE4의 출시 가격은 전작(429달러)보다 조금 더 비싼



빙속 여자 팀 스피리트 '초대 챔피언'

김민지와 이나현, 김민선(왼쪽부터)이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스피리트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린 9개 금메달 중 6개를 따면서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 금메달 획득 타이 기록을 썼다.

김민지와 이나현, 김민선(왼쪽부터)이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스피리트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린 9개 금메달 중 6개를 따면서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 금메달 획득 타이 기록을 썼다.

/뉴시스

499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까지 스마트폰 신작을 출시함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간 SE4는 보급형에 그쳤지만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되면서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5시리즈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S25시리즈가 역대 최대 판매율을 기록한 데다 최근 SE시리즈의 판매가 부진한 만큼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했다. S25 시리즈는 AI기능도 한층 진화하고 지원 언어도 46개로 늘었다. 갤럭시 S25는 S시리즈 가운데 역대 최대 판매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앞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판매에서 130만대가 팔리며 역대 S시리즈

중 최다 판매 신기록도 세웠다.

반면 최근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율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작 아이폰SE3의 경우 인방인 미국 시장에서 출시 초기 3주간 판매량이 전작 아이폰SE2 대비 8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율이 저조한 아이폰SE3와 아이폰13미니 생산량을 감축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축구장 8개 크기... 롯데, 인도 신공장 준공

신동빈, 14억 소비시장 본격 공략 "최상 품질로 최고 브랜드 만들 것"

롯데가 인도에서 신공장 준공식을 열고 14억명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롯데는 롯데웰푸드를 통해 2004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 건과 법인인 '롯데 인디아'와 빙과 법인인 '하브모어'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인도 매출은 2023년 기준 2700억원에 달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6일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Pune)시에서 하브모어 푸네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서 깊은 하브모어 기업을 인수하며 인도 빙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롯데는 인도의 눈부신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번 신공장 준공이 롯데의 글로벌 식품 사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롯데는 6일 인도 푸네에서 하브모어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공장은 롯데웰푸드가 2017년 하브모어를 인수한 이후 처음 증설한 생산시설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이 신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지주

될 것이며, 앞으로 최상의 품질 제품을 만들어 하브모어를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푸네 신공장은 롯데웰푸드가 2017년 12월 하브모어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증설한 생산시설이다. 공장 부지 면적은 6만㎡로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고, 기존 구자라트 공장보다 6배 큰 규모다.

신공장에는 롯데웰푸드의 자동화 설비 등 한국의 선진 생산 기술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롯데웰푸드는 빙과 성수기에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지며 올해에만 빙과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9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푸네 신공장은 오는 2028년까지 생산라인을 16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푸네 신공장이 위치한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시는 하브모어에게 있어 최적의 지리적 요충지다. 하브모어는 푸네 공장의 생산 물량을 바탕으로 인도 서부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동시에 푸네 공장을 인도 남부 지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美,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부과시 총 수출 감소 132억달러 달할 듯”

무협, 트럼프 관세조치 영향

특정국 관세, 對美수출 '반사이익' 보편관세가 수출에 더 직접적 영향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대 미국 수출 증가가 상쇄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와 수출 경쟁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승 영향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 감소 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특정국 대상 관세보다 보편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대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10%포인트 부과(시나리오3) 총 3단계다.

우선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1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對세계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달러로 추정됐다.

여기에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2억2000만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3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김정은, 핵무력 고도화 방침 재확인... "미국이 세계 분쟁 배후"
▲이재명 '우클릭' 속 민주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 준비기구 가동 /사진 뉴시스

▲여 "현재, 한덕수 탄핵 각하해야... 대미 외교 손발 묶여"
▲이준석 "창당 날 초심으로 돌아가 전진하자"... 허은아 "개과천선하라"

▲민주당, 11일부터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대국민 소통 강화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법률지원 변호사, 한동훈 '내란 혐의' 고발